

## 한·SICA 정상회의 개최식 연설

존경하는 블라뇨스 니카라과 대통령, 파체코 코스타리카 대통령,  
베르체 과테말라 대통령, 사카 엘살바도르 대통령,  
리암스 온두라스 부통령, 루이스 파나마 부통령,  
모랄레스 도미니카 외교 장관, 칼 주 코스타리카 벨리즈 대사,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중미 정상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차 한·SICA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지난 9년간 우리 모두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중미 각국은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시카(SICA)를 중심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 왔습니다. 한국 또한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IT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과 중미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식민지배, 이념대립, 군사독재, 그리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을 향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통상·투자 증진과 문화교류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미가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설계해 가는 굳건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우정과 환대에 감사드리며, '중미가 영광의 언어로 새로운 축가를 부를 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